

의무교육, 그렇지만 이렇게 돈이 듭니다

— 무료인것은 교과서, 수업료뿐입니다. —



의무 교육은 아이를 무료로 맡아주는 공공의 장소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는 사회의 중요한 보물입니다. 차세대를 이끌어가는 보물을 키우는 데는 역시 비용이 꽤 든다는 것을 알아 두세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의외로 돈이 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본국 헌법에 있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립의 초·중학교에서는 수업료나 교과서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급식비나 학교의 수업에 필요한 학용품, 그리고 소풍에 드는 비용, PTA 회비 등이 보호자 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의외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내는 것은 적어도 연간 든 비용을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급식비는 연간 평균 약 41,000 엔. 학교 교육비는 연간 평균 약 57,000 엔. 1학년의 입학시에는 【란도셀】이라고 하는 큰 가방을 구입하는 것과 체육복이나 학교 지정의 교재 문구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학년은 【수학 여행】의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문교부의 통계에 의하면 학교 교육비에 1학년은 약 88,000 엔, 6학년은 약 82,000 엔이나 든다고 합니다. (평성 18년도 실시).

	급식비	학교교육비	합계	학교교육비에 포함되는 주된 것
평 균	41,000	57,000	98,000	●수학여행·소풍·견학비
1 년	41,000	88,000	129,000	●PTA 회비
2 년	41,000	34,000	75,000	●학용품·실험실습재료비 (학용품, 체육용품, 악기 등)
3 년	41,000	40,000	81,000	●교과외 활동비(클럽활동비 등)
4 년	41,000	42,000	83,000	●교복(있을 경우)
5 년	41,000	54,000	95,000	●통학용품비(란도셀 등)
6 년	41,000	82,000	123,000	

단위: 엔 (천엔미만 반올림)

의무 교육이라고는 해도 이만큼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는 금방 크기때문에 체육복이나 수영복 등은 입을 수 있는 기간이 짧네요. 의외로 깨끗해 버리기는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처의 친구를 통해서 물려받는 것도 절약방법의 하나입니다.

www.ficec.jp/foreign/

● 「인포메이션후지미노」의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게가 썬지, 보호자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학교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 알고 지내는 보호자가 늘고 지나가는 잡담속에서 육아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교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빠/엄마 네트워크」는 만일의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 각시마치무라는 학용품·통학용품비·교외활동비·수학여행비·급식비·의료비(법으로 정하는 질병)를 원조하는 「취학원조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인정기준을 만족시키면 외국인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다니고 있는 학교 또는, 교육위원회에 상담해 주십시오. 불안하실 때는 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사회의 보물입니다. 힘들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친구나 사회의 힘을 빌려 소중한 키워갑시다. (글·우에시마 나오미)

중학 입학 을 기다리는 편부모가정 아동에게 취학준비금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의무교육도 돈이 듭니다. 사회의 보물인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저소득 편부모가정의 아동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조성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편부모가정 아동 취학준비금지급제도」라고 하는 현의 제도입니다.

- **대 상** 평성 22년 4월에 중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을 기르고 있는 편부모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가 없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성 21년도의 시민세비과세세대인 분(생활보호수급세대는 제외합니다)
- **지급액** 중학교입학아동 한사람당 1만엔
- **신청방법** 송금처금융기관의 통장을 가지고 오셔서 육아지원과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 **신청마감일** 12월 28일(월) 마감일이 지나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출산육아일시금이 늘어납니다

평성21년10월1일 이후에 출산하시는 분은 지급액이 38만엔에서 42만엔으로 늘어납니다. 지급방법은 차이가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다니는 병원이나 시나 마치의 보험연금과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외국인전문 지원조직을 알고 계십니까?

- **외국인지원상담센터 사이타마...** 입관상담,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FAX 048-833-3600
- **법테라스사이타마외국인무료법률상담...** 입관법, 재류자격, 결혼 등, 변호사에 의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050-3383-5373 로 예약을

**즐거운 「파소콘교실」
12월~5월**

점차로 잘 익혀진다는 평판이 좋은 카지선생님의 「파소콘 교실」. 12월기 부터의 외국인시민의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소콘강사에 의한 본격적 지도입니다. 파소콘지참이 원칙입니다만 3대정도는 센터의 것으로 사용이 가능. PC에 도전하고 싶은 분은 센터의 일본어 교실로 신청하세요

**12월 17일은
일본어 교실의
소바만드는 체험날**

일본에서는 12월 31일에 매년 무병장수,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소바를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소바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날 강사선생님은 알고계시는 일본어 선생님이기도 하신 토즈가선생님.
참가비는 무료. 도전해보세요.

www.ficec.jp/living/

● 6개국어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